

문화재청 공고 제2021-17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4. 28.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1548호 (2008.3.12 지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불상 3구, 후령통 2건일괄 시주질 2건	①삼신불: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②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화엄사정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1999.4.23.지정)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27구 (불상3, 나한16, 좌우제석천2, 용녀1, 동녀1, 사자2, 장군2) 발원문 7점	①삼존상 및 나한상· 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②장군상 2구 : 대한 불교조계종 송광사 (금산사정보박물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 (2007.1.8.지정)	울진 불영사 불연 (蔚珍 佛影寺 佛輦)	불연 2기, 동경 2점	대한불교조계종 불영사 (불영사정보박물관)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 (2012.7.6.지정)	송시열 초상 (宋時烈 肖像)	1축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소유자 (관리자)	변경사유
보물 제1548호 (2008.3.12.지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①삼신불 :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사 ②복장유물 : 대한불 교조계종 화엄사 (화엄사성보박물관)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라.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 현재 지정사항 : 보물 제1548호(2008.3.12. 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①삼신불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②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화엄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①삼신불: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 대웅전
 ②복장유물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후령통 2건 일괄, 시주질 2건
- 규 격 : ① 비로자나불(본존): 전체높이 378.4cm, 불상높이 277.7cm
 ② 노사나불(좌) : 전체높이 367.9cm 불상높이 268.2cm
 ③ 석가여래(우) : 전체높이 349.7cm, 불상높이 248.6cm
 ④ 복장유물 : 노사나불 시주질 254×246(19장), 석가여래 시주질 255×250(11장)
 ⑤ 후령통1(석가) 후신높이 11.0cm, 폭 6.4cm, 후개높이 3.5cm 폭 6.5 두께 0.1cm
 ⑥ 후령통2(노사나) 전체높이 15.0cm 폭 6.5cm
- 재 질 : 목조, 금속
- 조성연대 : 1635년(인조 13)
- 제작자 : 청헌(淸軒, 淸憲), 응원(應元), 인균(印均), 법현(法玄), 성근(省根), 영색(英蹟, 英頤), 원택(員澤), 선운(善允), 천효(天曉), 인희(印熙), 상의(尙義), 상일(尙一), 지학(智學), 운밀(雲密), 법밀(法密), 학호(學浩), 나흠(懶欽), 선견(善堅)
- 사 유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1635년(인조 13) 조선 후기 유명 조각승인 청헌(淸軒, 淸憲)과 응원(應元), 인균(印均)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협업해 완성한 17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말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으로서,

변상도나 사경(寫經), 불화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조각작품으로는 유일해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에는 복장유물과 관련 기록 등이 발견되면서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제작시기와 과정, 후원자, 참여자들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즉 이 삼신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응전에 봉안하기 위해 1634~1635년 동안 조성한 것이다.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碧巖) 각성(覺性, 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珩, 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부부, 다수의 왕실 상궁 등 승려 580여명을 포함한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불사를 주관한 벽암 각성은 임진왜란 이후 완주 송광사, 법주사, 화엄사, 쌍계사 등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사찰의 중창 불사를 주도해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을 갖춘 연화대좌와 팔각의 목조대좌에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대좌를 포함해 총 3m가 넘는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선이 굵게 표현된 기법 등 조각솜씨가 중후한 느낌을 더해 준다. 이 삼신불상은 청헌과와 응원·인규과가 참여한 만큼 표현에서도 각 유과의 조각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근엄한 표정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은 청헌과가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부드러운 얼굴에 작은 눈과 두툼한 눈두덩이가 표현된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규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청헌, 응원, 인규과 제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한 기념비적인 대작(大作)으로서, 이는 불사를 주관한 벽암 각성, 의창군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제작된 목조불상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조각으로 유일하게 표현된 삼신불 도상이라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고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술적·조형적 수준도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돋보이므로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보물 지정 예고】

□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 현재 지정사항: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1999.4.23.지정)
- 명 칭: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①삼존상 및 나한상·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②장군상 2구: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금산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①삼존상 및 나한상, 발원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
②장군상 2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정보박물관
- 수 량: 27구(불상3, 나한16, 좌우제석천2, 용녀1, 동녀1, 사자2, 장군2), 발원문 7점
- 규 격: ①석가여래 상높이 192cm 무릎폭 158cm ②제각각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③미륵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등 ※별첨 규격표 참조
- 재 질: 목조 및 소조
- 제작연대: 1656년(효종 7년)
- 제작자: 무염(無染), 현준(玄准), 계훈(戒訓), 사인(思印), 성훈(性淳), 태신(太信), 법기(法器), 희순(熙淳), 각선(覺善), 경희(敬熙), 단응(丹應), 천신(天信), 도균(道均), 해정(海淨), 삼응(三應), 도심(道心), 행민(行敏), 인경(印靉), 법행(法行), 선문(善文), 중학(冲學), 의종(議宗), 심민(心敏), 성환(性環), 사인(思忍), 지수(智修), 각림(覺林), 중행(冲行), 옥현(玉玄), 행주(行珠)

○ 사 유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656년(효종 7) 만들어진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작품이다. 참여한 조각승도 이에 걸맞게 30명 이상 참여하였고 이는 1622년 왕실 사찰인 자수사(慈壽寺)·인수사(仁壽寺) 불상 조성에 참여한 장인 인원수(조각승 13명, 야장冶匠 4명)를 능가하는 인원이 참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작방식도 당시 유행한 목조와 소조, 채색 기법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작가의 재치와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다. 특히 나한상과 동자상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작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며, 이외 영산회상에 용녀현주

상의 등장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이는 모든 중생의 성불(成佛)이라는 불교의 대명제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로써 불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 일군의 불상은 제작에 있어 수조각승 무염(無染)의 통솔 아래 조각승들이 1~4명씩 분담해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 조각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염·승일과, 현진·청헌과, 수연과의 조각승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는 자수사·인수사 불사와 마찬가지로 17세기 대표적 승려 벽암(碧巖) 각성(覺性, 1575~1660)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만큼 이 나한전 불사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완주 송광사 불상은 조각과 더불어 개금·개채 작업 등 조각승과 불화승간의 협업 체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역이 다른 화원들이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발원문을 통해 확인된 조각승 단응(丹應)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구미 봉황사 삼존상 등에서 송광사와 위봉사의 조각승으로 기록된 인물로서, 그가 경북·충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이전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송광사를 본산으로 활약했던 조각승들의 활동체계와 제작태도, 경향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발원문 목록

연번	명칭	재질	크기cm	시대	비고
1	願文	지본 묵서	40.4×90.5	1656년	*석가여래삼존상에서 수습된 것으로 추정
2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三)	지본 묵서	40.0×49.5	"	*書員 性淳 *말미 ‘第三’ 묵서
3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成同願文(第七)	지본 묵서	38.8×50.2	"	*書員 道均, 太信, 照信 *말미 ‘第七’ 묵서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九)	지본 묵서	40.6×50.2	"	*書員 忠學, 思印, 智修, 覺林 *말미 ‘第九’ 묵서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十)	지본 묵서	40.3×50.2	"	*書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말미 ‘第十’ 묵서
6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第十四)	지본 묵서	39.5×45	"	*書員 戒訓, 性淳, 思印 *말미 ‘第十四’
7	大靈山十六○○○○聞如[與]左帝釋成造同願○	지본 묵서	39.5×48.2	"	*書員 顯准

□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 佛影寺 佛輦)

- 현재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2007.1.8.지정)
- 명 칭 :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 佛影寺 佛輦)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영사(불영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불영사길 48, 불영사
- 수 량 : 불연 2기, 동경 2점
- 규 격 : 불연① : 총높이 127.5cm, 총길이 290.0cm, 몸체63.0×64.0cm
불연② : 총높이 121.0cm, 총길이 301.0cm, 몸체53.0×58.0cm
동경① : 지름 22.7cm, 두께 0.48cm
동경② : 지름 15.0cm, 두께 0.37cm
- 재 질 : 목조, 금속, 유리, 명주 등
- 형 식 : 궁륭형 처마를 가진 가마
- 조성연대 : 1670년(현종 11년)
- 제작자 :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추정
- 사 유

‘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 화원(畫員)으로 추정되는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등이 참여해 조성한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약 20기의 조선 후기 불연(佛輦) 중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

불연은 불가(佛家)의 불보살, 사리, 경전, 불패,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의식도량으로 모셔오는 시련의식(侍輦儀式)에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범구이나, 현존하는 불연 유물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며, 그 중에서도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 매우 드물다. ‘울진 불영사 불연’은 2기 모두 167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와 화주(化主) 학종(學宗)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연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 그리고 불연의 제작자로 추정되는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단아한 균형미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세부 조형에 있어도 나무로 엮어 만든 궁륭형 지붕과 봉황조각, 청판머름 조각, 가마채의 용두장식, 난간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특히 불연의 몸체 주렴(珠簾)에 동경(銅鏡, 거울)을 매단 최초의 사례로, 이는 불상의 양

면원경이나 불화 복장낭 앞에 매단 동경과 같이 무명(無明)을 밝혀주는 역할과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교 의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례사적 의미가 크다.

이밖에 황동과 주석, 철 등 재료를 달리한 금속재료를 사용해 섬세한 제작 의도가 돋보이며, 지붕과 몸체 곳곳의 장식(裝錫)과 보석을 단 장식 등을 통해서도 당대 뛰어난 장인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불교공예품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불연 중 제작 당시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작배경을 소상히 담은 기록이나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사례로는 단연 불영사 불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유로 불영사 불연 2기와 동경 2점 모두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 현재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2012.7.6.지정)
- 명 칭 :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 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164.5×74.8cm, 화면 90.9×61.9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전반
- 사 유

‘송시열 초상’은 조선 중기 정치와 학문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성리학의 대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초상화로, 제천의 황강영당(黃江影堂)에 300년 넘게 봉안되어 온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송시열은 고위직을 지냈음에도 화면 속 그는 관료의 모습이 아닌 사방건(四方巾)을 쓰고 심의(深衣)를 입은 청정한 유학자로 표현되었다.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라는 화제가 전서로 적혀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송시열의 초상을 문인화가 김창업(金昌業)이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金昌協)의 화상찬(畫像讚)이 해서로 적혀 있다. 화면 왼쪽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

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해서로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본을 저본으로 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은 족자형태로 장황되었고 이음새 없는 한 장의 비단을 화면으로 사용해 네모난 회색 사방건을 쓰고 검은색으로 깃과 소맷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회색 심의를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넣은 반신상을 묘사했다. 송시열의 굴곡진 삶을 대변하듯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턱수염, 구레나룻에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 인상적이다.

회고 검은 긴 수염은 세밀하게 표현한 반면 눈썹은 검고 짙게 그렸고, 황갈색으로 주름과 음영을 표현한 얼굴의 상세한 묘사와 달리 의복은 짙은 먹선 위주로 굵고 간략하게 그려 송시열의 용모와 기상, 품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송시열의 초상화는 후대에도 추앙이 지속되면서 약 30점의 많은 작품이 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김창업이 그린 초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점과 진재해(奏再奚, 1691~1769) 등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우수한 사례에 속한다. 유려하면서도 단정한 필선,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보 ‘송시열 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견주어도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 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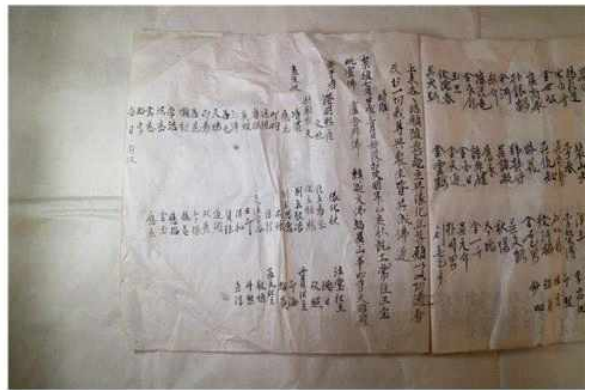
○ 국보 지정 예고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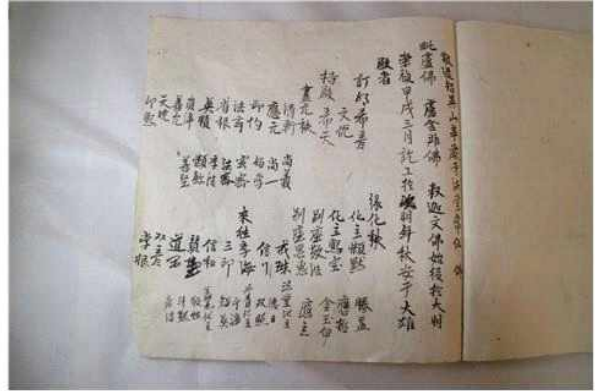
노사나불 대좌 묵서



석가여래 시주질 권말



노사나불 시주질 권두



노사나불 시주질 권말



후령통(석가)



사방경 등(석가)



후령통(노사나)

○ 보물 지정 예고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저석상



동녀상



사자상



인관상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별천상



동녀상



사자상



인왕상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나한상)>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장군상)>



<울진 불영사 불연①>



<울진 불영사 불연②>



<울진 불영사 불연 동경①·②>



<송시열 초상>